

## 성경해석과 사회복지

인간 이해, 빈곤 원인 그리고 사회복지의 목적 중심으로

강상우(백석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 박사과정수료)

### 논문초록

성경해석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처럼 성경해석은 사회복지실천에도 밀접한 영향을 준다. 인간의 이해 문제 즉, 인간을 자율적 인간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이해하느냐, 빈곤(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성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구조적 문제로 이해할 것이냐,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전도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도 모두 성경해석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의 성경의 해석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제어:** 성경해석, 사회복지실천, 사회적 책임, 기독교세계관, 빈곤의 원인.

### 1. 들어가는 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절대적 진리이다. 그렇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류(誤謬)있는 해석이 존재하고 때로는 다양(多様)한 해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sup>1)</sup> 오류 있는 인간의 해석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와는 거리가 멀게 표현되

---

2010년 5월 9일 접수; 6월 20일 수정; 6월 23일 게재확정.

- 1)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반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관련하여 겸손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비록 성경이 특별계시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지만, 그것은 항상 오류가 있는 인간들에 의해서 해석된다.(딤후3:16) 그렇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어진다. 그런가 하면 오류(誤謬)있는 다양한 인간의 해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일면(一面)만을 나타내 보인다. 이러한 결과 잘못된 성경해석은 인간의 삶을 황폐케 만든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못하는 성경해석은 같은 성경구절에 대해서 다양한 성경의 해석을 가능케 하며 이는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적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서 상이한 실천으로 드러나게 한다. 이 때문에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인간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성경의 해석이 인간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의 차이는 사회문제를 규정함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고,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즉 정책에 있어서 접근방법에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성경 해석의 차이는 때로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실천기술(Skill & technique)의 수용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성경 해석의 차이가 사회복지실천에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음의 예들에서 알 수 있다. 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과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의 경우 둘 다 기독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서로 다른 목표(강조점)를 가지고 발전하였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였는가. 그 이유는 성경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이 두 조직 다 기독교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빈곤의 원인에 대한 성경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이라는 상이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천년왕국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도 사회복지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전천년설을 믿느냐 아니면 후천년설을 믿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전천년주의자나, 아니면 후천년주의자나에 따라 사회복지실천 목적이 전도(선교)나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나에 대한 강조점(우선순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현(現)사회복지실천과 사회적 관심에 대해서 적극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냐의 행위로 귀결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성경 해석에 대한 이해가 우리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만(信行一致의 경우, 성경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현실의 실제 삶에서는

---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성의 한계와 충돌하고 있다.”(Collins, 1993: 41-59; McMinn, 2001:127 재인용)

자신이 믿는 성경해석에 대한 견해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직접적이며 연관된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삶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sup>2)</sup>

본고에서는 성경해석에 따라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 빈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복지실천 목적 등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의 올바른 성경해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 II. 성경해석과 사회복지

먼저 간단하게 성경해석이 인간의 사소한 삶의 행동에 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인경이 소개한 예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저자가 성경해석이라는 말 대신에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세계관은 성경해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성경해석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여 읽어도 의미상 무관할 것으로 본다.

남자들이 ‘오줌 누는 습관’ 하나만 보아도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남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오줌을 다 누고 나오면서 손을 씻는 것이 상식으로 통합니다. 더러운 성기를 만졌다고 생각하거나 오줌이 손에 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남자들은 볼일을 보기 전에 손을 먼저 씻는답니다. 할례(포경수술)를 받을 만큼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에 성기를 더럽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불결한 손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고추가 성기(性器)가 아니라 성기(聖器)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유대인보다 더 거룩하게 앞뒤로 손 씻는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sup>3)</sup>(성인경,

2) 이러한 이유로 세계관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3) 예를 들어 세계관은 자료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물을 바라다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교롭게도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GODISNOWHERE’라는 문구가 있을 때, 이를 ‘GOD IS NOW HERE’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는 기독교 신앙적 관점(유신론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굳이 그 뜻을 ‘GOD IS NOWHERE’라고 해석한다면 그는 이미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을 포기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다.(주만성, 2003: 96).; 최초로 하늘을 선회했던 유리 가가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에 신은 없었다. 주변을 아주 열심히 둘러보

2001:281-28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해석이 사회복지실천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줄 수 있는가. 인간에 대한 이해; 자율적 인간이나 책임적 존재냐, 영적 특성을 포함한 전인적 인간이나 아니면 영적 특징을 제외한 단순히 심리사회생물적 존재(PSB Person)에 지나지 않느냐. 빈곤의 원인(넓게는 사회문제의 원인);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개인적 성향 때문인가 아니면 사회구조적인 문제 때문인가. 사회복지실천 목적; 사회복지실천이 전도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전도와 관계없이 사회적인 책임에서 오는 것이냐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1.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줄 수 있을까. 즉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자율적인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존재임을 말한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반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에서 말한 심리사회생물적 존재만이 아닌 더 나아가 영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는 전인적 존재(wholistic person)임을 말한다. 그렇지만 오류 있는 인간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모습의 복지정책이나 복지실천으로 나아간다.

먼저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볼 때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볼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사람은 일반 심리상담학자들은 상담심리

---

있지만 역시 신은 보이지 않았다.”(Tachibana, 2002: 65) 이에 비해서 제임스 어윈(James Irwin, 아폴로 15호)은 우주비행 전에는 교회에 가기만 하는 사람(Church-goer)으로 특별히 신앙심이 깊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주로부터 돌아와서는 신의 존재를 느꼈다며 NASA를 그만두고 전도사가 되어 콜로라도 스프링스(Springs, Colorado)에서 하이 플라이트 재단(High Flight Foundation)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세계를 돌아다니며 설교활동을 하였다고 한다.(Tachibana, 2002: 68) 이러한 결과가 왜 어윈에게 발생한 것일까. 어윈은 달에서 제너시스 락(genesis rock: 화장석이 제너시스 락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분석 결과 이 돌이 49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이라고 불리 우는 화장석을 발견하여 지구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우주에서 신에 대한 체형과 제너시스 락의 발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어윈의 세계관의 변화(World-view Shift)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기법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반상담심리 기법의 대부분의 경우가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인간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이해할 경우 자율적 인간에 근거를 둔 일반심리상담기법에 대해서 무조건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sup>4)</sup> 왜냐하면 자율적인 인간을 전제로 한 일반 심리학의 상담기법은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보는 관점과 상충되는 전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로 들자면 상담기법의 경우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기법(技法)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수용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 스키너의 심리상담기법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1971년에는 심리학자 스키너(B. F. Skinner)가 『자유를 존엄성을 넘어 서서』(Beyond Freedom and Dignity)란 책을 써서, 자유니 인간의 존엄성이니 하는 것은 모두 철학자들이나 문필가들이 만들어 낸 허구(虛構) 관념일 뿐 아니라, 과학적 조작을 통한 이상사회 건설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유물론적 인간관을 내세웠다. (손봉호, 1975; 손봉호, 1979: 43)<sup>5)</sup> 스키너는 또한 주장하기를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은 강화(reinforcement)의 과정을 통하여 파생되는 하나의 습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실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허구로서 도입된 개념이다.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지속적인 자극을 일으켜 주는 궁극적 강화요인으로서 긍정적, 부정적

- 
- 4) 물론 여기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의 심리상담기법에 대한 통합(integration)의 문제가 발생된다. 성경 해석에 따라서 일반심리상담 기법(skill & technique)에 대해 수용(assimilation), 거절(refusal), 또는 변혁(transformation) 중 하나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있어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필터링(filtering)하는 과정을 ART(assimilation, refusal, transformation의 머리글자)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ART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는 것은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다루듯이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예술가가 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술가를 의미하는 artist와 구별하여 arter라는 명명하고자 한다.
- 5) 스키너의 행동주의는 ‘내적인 인격’이나 ‘영혼’ 혹은 ‘정신’ 같은 것이 아예 없고, ‘형태적 특징들만 한 꾸러미’ 있을 뿐이라고 가정하고 있다고 한다.(Sire, 2007: 157); 정신과 의사인 스키너(B. F. Skinner)는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Beyond Freedom and Dignity)에서 인간이 인격적 자유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품위를 지녔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스키너는 사람을 그 삶의 태도에 대하여 칭찬하거나 벌할 수 없는 단지 주어진 환경의 산물로 보았다. 왜냐하면,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환경이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신뢰의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Skinner, 1971: 19; Wilhoit, 1991: 18 재인용)

강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이다.”(Dyrness, 1993: 211)고 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인간을 ‘오직 한 종류의 동물’(only another animal)(Adams, 1983: 72)이라고 정의한다. 스키너의 이러한 인간관은 인간을 환경적 자극의 부산물로 학습에 의한 인간을 개조하는 철학의 입장을 견지(見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박종삼, 1987: 77) 또 스키너의 견해를 따르면 개인에게 그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며, 그 어떠한 것도 죄가 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행위인 절도나, 강간, 동성애, 심지어 살인까지도 개인의 책임이 아닌 환경의 산물이며, 본인과는 관계없이 사회나 그 어떤 타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적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은 위의 스키너의 상담기법과 전체를 수용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스키너의 견해는 자율적 인간을 강조하는 견해와 별 차이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인간을 이해할 경우 스키너의 이론과 상담기법에 대해서 수용하기를 강하게 거부하게 된다. 스키너의 견해는 인간의 책임성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존재로 이해할 경우 죄를 사회적 유전적인 산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per se) 하나님에 대한 죄(sin)이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도 자율적 인간과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간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다. 인간이 자율적 존재라는 인간의 이해가 죄의 개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면 잘 나타난다. 캔자스 주 토피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닝거 클리닉을 만든 칼 메닝거(Karl Menninger)는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묻고, 우리가 문화적 정황에서 하나님을 추방함으로써 죄를 범죄로 바꾸었으며(왜냐하면, 이제 죄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위반이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아니라 국가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범죄를 증후로 바꾸었다고 대답했다. 메닝거에 따르면 죄는 이제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생긴 어떤 것이 되었다. 이제 죄는 나의 환경, 나의 부모, 나의 유전자 때문에 생긴 것에 불과하다. 자신의 책임 밖에 있는 것이 바로 죄가 되어버린 것이다. 메닝거는 더 나아가서 정신과 의사들이 “증상보다 더 심각한 죄를 갖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을 무시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Menninger, 1978; Boice, 1998: 238 재인용) 메닝거가 지적하듯이 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한 경우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sin)를

범죄(crime) 그 후엔 단순히 증후(syndrome)로 이해하게 만듦으로서 그 결과 죄에 대한 책임을 환경이나 유전의 문제로 취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죄에 대한 이해의 전제가 일반심리상담의 전제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죄에 대한 자율적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이해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인간을 바라 볼 경우 수용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자율적인 인간으로만 이해할 경우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클라이언트가 지닌 문제에 있어 접근의 차이가 있다.

동성애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동성애의 문제의 경우 자율적 인간으로만 이해할 경우 동성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단순히 선택(성적 취향)의 문제로 취급되어 진다. 자율적 인간으로만 이해할 경우, 동성애적 성향을 지지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로마 사회의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할 것이다. 이 경우 동성애적 삶을 선택하느냐 안하느냐는 단순히 성적 기호(性的嗜好)의 문제로 극단적으로는 동성애의 문제는 흡연의 문제나 피자의 선택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어질 것이다. 동성애를 하나의 취향의 문제로 취급하거나 그러한 견해에 대해 지지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동성애적 성생활을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옹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회복지사는 동성애자가 성적 소수자(sexual minority)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성적 다수자들과 같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역량강화(empowerment)의 프로그램을 운영 등으로 사회복지실천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이해할 경우 동성애는 선택할 수 있는 기호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사회문제, 반드시 버려야할 죄(sin)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여기서 사회문제라고 할 때 ‘사회’라는 개념이 ‘기독교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한 일반 신앙공동체의 해석은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하는 하나의 죄의 문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사회문제로 이해하는 사회복지사나 교회와 사회복지기관들은 앞의 자율적 인간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성적 소수자로 이해하는 경우와 다르게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클라이언트(client)에 대해서 동성애적 행위를 중단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그의 원조프

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하게 된다.

낙태(落胎: abortion)의 경우는 어떠한가.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이해할 경우 프로 초이스(Pro-Choice), 즉, 낙태의 문제를 임신모의 선택에 가치의 무게를 두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어느 것보다도 산모의 선택(자기결정권)이 우선하는 견해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인간을 책임적 존재로 이해할 경우에는 낙태의 문제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의 문제 즉 프로 초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프로 라이프(Pro-Life)의 문제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산모보다는 태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자율적 인간으로 보느냐, 책임 있는 존재로 볼 것이냐는 태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과 정책형성에 있어서 프로 초이스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프로 라이프의 관점에서 접근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복지실천의 현장에 있어서 상이한 정책적 접근과 실천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만약 프로 초이스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할 경우, 태아보다는 산모의 선택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큰 맥락에서는 낙태를 찬성하는 정책과 법률 등의 제정에 역량을 모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반대로, 책임적 존재로 인간을 이해할 경우 프로 라이프의 입장에서 태아의 생명을 강조할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며, 정책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그러한 단체들을 후원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성(性: Sex)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성을 자율적인 인간의 문제로 이해할 경우 성은 하나의 선택, 즉 동성애 등과 같이 기호(嗜好)의 문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성교육은 ‘피임(避妊)’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어떻게 하면 임신주기를 잘 피해서 임신을 하지 않는 안전한 성행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콘돔 등 안전한 피임기구 등을 사용하여 에이즈와 같은 성병으로부터 안전한 섹스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반대로 성은 부부(夫婦), 즉 배우자 간의 배타적 권리만 인정하는 하나님 앞의 책임 있는 인간의 문제로 이해할 경우에는 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성교육은 피임이 아닌 ‘금욕(禁慾)’의 관점에서 실행



될 확률이 높다. 이는 안전한 섹스를 위한 성교육보다는 “사랑은 기다린다.”(Love is Waiting), 즉 성년이 되어 부부관계를 통한 성적 삶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금욕적인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다.

월드비전의 AIDS 예방프로그램을 보면, 자율적 인간으로 보다는 책임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월드비전(World Vision)은 에이즈 캠페인에서 ABC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일반 AIDS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월드비전이 에이즈 캠페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ABC는 다음과 같다. A는 Abstain 즉 금욕(禁慾)을, B는 ‘Be faithful’ 즉 배우자에 대한 정절(貞節)을 지키는 것, 비중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보통 소문자로 씌어지는 c는 ‘콘돔(condom)’을 의미한다. 소문자 c는 구호단체가 콘돔을 에이즈를 방지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Meissner and Metlitzky, 2004: 170.)<sup>6)</sup> 이는 난잡한 성관계를 방지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에이즈 예방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AIDS 예방정책에 있어서 자율적 인간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AIDS 예방방법과 내용상 차이가 있다. 돕슨(James Dobson)의 경우 사춘기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하라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들에게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 아예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가르치는 데 더 높은 우선권(優先權)을 두라고 하는데(Johnson, 2000: 26) 이러한 견해 또한 책임 있는 존재의 관점에서 성을 보는 것으로 성은 부부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배타적 권리로 보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섹스 자원봉사』(Kaori, 2005)의 문제다. 섹스자원봉사의

6) “AIDS 방지계획안이 학계와 종교계 사이에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학계에서는 콘돔과 살정제(殺精劑) 사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전염(傳染)을 저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우선적으로 혼전 순결과 일부일처제 결혼을 통해 감염(感染)을 막고자 하였다.”(Orr, Schiedermayer and Biebel, 1997: 153)

7)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예비군훈련에서 AIDS 예방 교육의 대부분 만병통치약은 콘돔을 사용하면 AIDS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결코 난잡한 성행위를 하지 말라가 아니었다. 미혼모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결혼한 이후에 부부간에 성행위를 하라가 아니라, 임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콘돔을 사용하고, 여성의 월경주기를 잘 알아서 임신시기를 피해가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세상 프로그램과 기독교세계관은 대립적이거나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사회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필터링(Filtering: ART) 과정이 적실히 필요하다.

경우는 어떨까. 사실 위의 책을 읽으면서 혹시 소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이 책의 저자의 주장처럼 섹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가 가능한가. 이는 성을 부부간의 배타적 관계로 이해할 경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이 경우 자원봉사라는 말은 단지 ‘빛 좋은 수식어’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섹스 자원봉사라는 것은 허용되어 질 수 없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네덜란드의 한 주(지방)를 예를 들어 장애인들에게 섹스를 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재원을 보조하는 경우, 성을 배타적 권리로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비록 섹스자원봉사가 정부의 정책이고 장애인의 성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찬성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섹스자원봉사에 대해 인간을 자율적 인간으로 보는 경우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회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장을 견지한 자들은 성행위도 넓게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하려 하고 자원봉사의 범위도 넓게 해석하려고 한다. 그 결과 국가는 성적 삶을 누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 원조해 주어야 할 장애인의 문제로 규정할 것이다.

존엄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가. 존엄사를 원조하는 사회복지단체에서 그리스도인이 근무할 수 있을까. 미국의 험락(Helmock)과 같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단체에서 그리스도인 사회복지사가 말기환자들이 스스로 삶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회단체 활동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물론 험락이라는 조직이 도덕적 모순과 법적인 문제에 당면하고 있지만(Humphry, 1996; Adams, 2007: 73-74 재인용) 존엄사와 같은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자율적 존재로 인간을 이해할 경우, 생명의 결정권은 존엄사를 원하는 자율적인 인간 자신에게 있으므로 험락과 같은 존엄사를 인정하는 단체에서 존엄사를 위한 역량강화의 실천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안락사를 도우는 것은 넓은 의미의 휴머니즘으로 이해되어질 것이고, 장려되어야 할 하나의 봉사행위로 이해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존엄사를 인정하는 단체에서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한다거나 존엄사 실천을 위한 임파워먼트를 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문제다. 생명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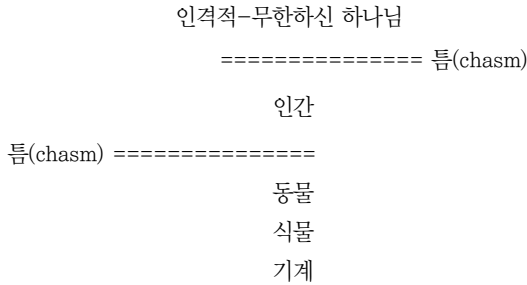
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환자 그 자신의 생명에 관한 환자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인간을 이해할 때에 전인적 존재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영적 측면을 무시(無視)한 사회-심리-생물학적 존재로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많은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물론 최근에 인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반사회복지학은 ‘상황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 PIE)’을 추구하는 등 나름대로 전체적인 인간(wholistic person)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일반심리학과 사회복지학이 인간을 이해할 때에 사회-심리-생물적 인간(social-psycho-bio person)으로의 접근을 시도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이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으로 논리실증주의(일반적으로 과학적 방법론으로 이해되는)에 입각한 주류학문에 머물기 위해 인간의 영적인 측면을 거부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영성의 문제 등은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그 결과 일반사회복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간 이해에 있어서 영적인 측면의 고려가 결핍된 사회복지실천의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을 영적인 측면을 포함한 전체적 인간으로 이해하면, 인간이란 사회-심리-생물적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영적 인간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인간의 욕구(needs)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영적 측면의 욕구도 고려된다. 즉 가난에 있어서 단순한 경제 사회적인 가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을 시도하거나 시도하려고 노력하게 된다.(영적인 빈곤의 문제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의 상대적 빈곤에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임종사역인 호스피스 사역의 경우에도 영적 임종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영적 임종은 백승균이 ‘전인적 길잡이로서의 방법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임종환자를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본래의 자기로 되돌아가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한 부분, 부분적으로의 인간존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총체적으로, 즉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게 된다.(백승균, 2004: 39) 또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의 이해는 범죄의 경우에도 단순히 범죄의 사회적 현상, 심리적 현상, 생물학적 현상에 집착하는 것과는 달리 영적 차원에서 범죄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며 영적 차원에서의 범죄에 대해 접근하게 된다. 앤더슨(R. S. Anderson)도 죄의 개념에 대해서

는 단지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가, 외부에 존재하는가 하는 방식의 이해만이 아니라,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Anderson, 2002: 26-29). 죄에 대한 영적 차원에서의 이해는 죄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점에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이며 영적인 전인적 차원에서 죄에 대한 상담과 접근이 필요하게 됨을 의미한다.(김용태, 2006: 122). 영적인 존재로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또한 사회복지실천의 임상에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한다. 마이어스(D. G. Myers)는 『기도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가?』(Is Prayer Clinically Effective?)라는 논문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의 기도 연구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마이어스에 의하면 기도가 임상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는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는 기도란 마술(magic)이 아니라 신비(mystery)라고 한다. 기도 현상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기도는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현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비한 현상이다.(Myers, 2000: 93-102; 김용태, 2006: 348-349 재인용) 이처럼 인간을 영적 측면을 포함한 전인적 존재로 이해할 경우 과학적 방법론과 논리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사에 비해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기도와 같은 영적 도구들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논리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현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기도 등 영적인 수단들은 단지 마술과 같은 것으로 치부되어 실천기술 등에서 배제되어 질 것이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 말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프란시스 쉐퍼(F. Schaeffer)의 견해를 살펴보자.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과 식물, 그리고 기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무한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은 기계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존재하는 단절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인격적인 면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이 관계를 <그림 1>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지위처럼 도식화하면 틈(chasm)의 위치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창조되어졌다.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

이 있는 위쪽으로도 성립되며 아래쪽으로도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위쪽으로는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존재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Schaeffer, 2003: 32) 이것은 하나님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모두 다 같이 중요시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전인(全人)은 매우 중요하다.(Schaeffer, 2003: 34)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전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전인적 접근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 실천의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우해야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전인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의 목적 자체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상담의 형태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행동주의자들은 증상의 제거에 목적을 둔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자아강도에 관심을 기울인다. 행동주의자나 정신분석학자들에 비해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과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김용태, 2006: 51) 즉 기도라든가, 영성 등 영적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영적 실천기법들을 실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전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함으로 사회복지실천에서 범하기 쉬운 ‘낙인(烙印: Stigma) 효과’를 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인 클라이언트들을 성별 인종 문화 등과 관련하여 차별 없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는 신분과 성, 지위에 관계없이 클라이언트 모두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다.



자료: Schaeffer, 2003: 32

<그림 1>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지위

콜린스(Gary Collins)는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 인간은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특징들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Collins, 2001: 84-87; Crabb, 2002: 64; Holmes, 1994: 156 참고)<sup>8)</sup> (ㄱ)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relational being), (ㄴ) 인간은 성적 존재이며(being of gender), (ㄷ) 인간은 도덕적 존재(moral being)이며, (ㄹ) 인간은 책임을 가진 존재(being of responsibility)다. 이러한 인간의 이해는 일반상담이론의 전제와 차이를 보인다. 일반상담이론은 인간을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지만, 즉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부정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된 존재이지 인간 스스로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Powlison, 2000: 20; McMinn, 2001:174 재인용). 이러한 전제의 차이는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심리상담 기법 중에 인간의 자율성을 철학적 토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회문제를 규정할 때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동성애라든가 낙태, 성의 문제 등에 대해서 일반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존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2. 사회문제로서의 빈곤의 원인

---

8)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like God) 창조된 존재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의 의미는 책임을 지는 행동을 말한다.”고 한다.(김용태, 2006: 177)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 크게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길더(George Gilder)는 “Welfare and Poverty”에서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의 관점에서 찾는다. 길더에 의하면 게으른 인격성 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발생한 것이다.(손병덕, 2005: 22 재인용) 이에 비해서 윌슨(Julius Wilson)은 “The Truly Disadvantaged”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사회에 존재함을 지적함으로써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찾는다.(손병덕, 2005: 27 재인용)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강국은 “여전히 가난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그리고 선택의 문제로 파악하며 빈곤이 경제성장과 함께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이강국, 2007: 29)고 지적하면서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는 것을 지적한다.

빈곤의 원인이 어디에서 찾느냐는 오늘날에 여전히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는 문제다. 보수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처한 불행은 가난한 사람들의 개개인의 탓(개인적 요인)으로 돌린다. 이에 반해서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견해를 몰인정하고 왜곡된 것으로 치부한다. 자유주의자들은 희생자를 비난하기보다는 가난을 창출해 내는 구조(사회구조적 요인)를 정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자 간의 차이는 가난의 원인에 대한 견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성, 마약, 알코올, 직업에 대한 잘못된 선택이 가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지 못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 지나치게 동정적인 자유주의자들을 비웃는다.(Sider, 2002: 182; Sider, 2009 참고)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만 보느냐의 문제는 성경 해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잠6:6; 23:21)”의 구절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 성구에만 집착할 경우에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기보다는 개인에게서 찾는다. 이와 반대로,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여 ...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는 ..... 화 있을진저(사10:1-2)”와 같이 사회구조적 요

인에서 빈곤을 말하고 있는 성구에만 집착하여 빈곤의 원인을 바라보게 되는 자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원인에서 찾기보다는 불공평한 사회구조에서 찾게 된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빈곤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함을 본다. 개인의 문제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 자들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라는 사회구조적 악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라는 사회구조적 악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찾기보다는 ‘영적인 문제’ 즉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이상숭배로만 이해하려고 할 것이고(물론 가난한 자에 대한 핍박도 이상숭배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맘몬에 대한 이상숭배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핍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영적인 문제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결국에는 이상숭배와 같은 영적인 것에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불의와 이상숭배(개인적 병폐와 더불어 사회구조적 병폐)를 멈춘다면 희망이 있다고 선포한다. “네가 .....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 다른 신들을 좇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렘7:5-7)”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억압했고(렘 34:3-17) 예레미야는 거듭해서 하나님이 바빌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음을 보여 준다. 물론 이상숭배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이상숭배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는 기억하는 반면 경제적 착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간과한다.(Sider, 2002: 73)

소돔 성의 멸망의 원인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이다. 소돔 성의 멸망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서 기록된 소돔 성(城) 이야기는 이 무시무시한 진리의 또 다른 예다.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묻는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돔성이 성(동성애: homosex: sodomite)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실제 가르침 가운데 일면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신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소돔이 가난한 자들과 재물을 나누어 갖기를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겔



16:49-50; 사1:10-17; Sider, 2002: 89) 즉,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과 더불어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그 당시 사회구조적 문제가 바로 소동 성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참고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이를 악용하여서 소동 성의 멸망이 동성애와 거리가 먼 단지 사회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또한 성경의 일면만을 보는 오류 있는 해석이다)

빈곤에 대한 해석은 가난한 자에 대한 원조(의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역사의 최고 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셨으며 자기 백성들을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된 이유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에 대한 원조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빈자에 대한 원조 의무의 범위도 성경해석에 따라 기독교학자의 경우 다르게 주장되고 있는 것을 본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에 의하면 가난한 자에 대한 의무는 전형적으로 세 유형으로 나뉘질 수 있다고 한다. (ㄱ) 그 어떤 권리를 강탈하지 않을 의무, (ㄴ) 강탈되지 않도록 도울 의무, (ㄷ) 강탈되어졌을 때 그 강탈된 자를 도울 의무 등이 그것이다. 월터스토프는 가난한 자에 대한 원조의 범위를 넓게 이해한다. 이에 비해 칼빈(John Calvin)은 제네바시(Geneva city)에서 가난한 자를 희생시키고 있는 부유한 자를 강단에서 호통 칠 때 첫 번째 의무의 범주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원조의 범주를 강조한 경우다. 또 카이퍼(Abraham Kuyper)가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자선을 넘어서서 압제적인 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두 번째 종류의 의무, 즉 생계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경우다. 이에 비해 월터스토프는 칼빈과 카이퍼의 제시한 가난한 자에 대한 의무를 넘어 강탈되어졌을 때 그 강탈된 자를 도울 의무까지로 나갈 것을 제시한다.

이제 나의 주(主)논지는 이것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중에는 일반적이고 심각하여 또 고쳐질 수 있는 위협을 접할 때 합당하게 자신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의식주(衣食住)에 대

한 권리가 포함된다. 건강에 해롭지 않을 물과 공기를 마실 권리, 기초적인 건강 유지를 위한 권리 등이다.(Wolterstorff, 1990:125; Wolterstorff, 2007 참고)

근대사회복지의 자선조직협회(COS)와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은 민간사회복지활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박 준, 2003: 56; 김종일, 2006: 52) 학자들에 따르면 근대사회복지 효시인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모두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원석조, 2003: 116-117).<sup>9)</sup> 즉 찰머스(Thomas Chalmers) 목사의 그린운동의 정신과 방법을 자선조직협회((COS)와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이 계승하였다는 것이다.(최무열, 2008: 199-200, 226-227, 243-244) 그렇다면, 인보관과 자선조직협회 이 두 조직의 성격이나 목표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이 두 조직은 같은 기독교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어떻게 같은 기독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두 조직이 서로 다른 방향의 사회복지실천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가난의 원인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냐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診斷)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의 원인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즉 해석의 차이)가 사회복지 역사에서 같은 기독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인보관운동과 자선조직협회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가도록 한 것이다. 즉 인보관운동을 실천한 사람들의 경우 처음에는 자선조직협회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자선조직협회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였고 보다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참여적인 차원에서의 빈민문제를 해결을 모색하는 가운데 자선조직협회와는 다른 형태의 인보관운동이 탄생하게 된다.(최무열, 2008: 237) 다시 말하면 인보관운동의 사람들도 처음에

9)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보관 운동(Settlement Movement)이 기독교 사상에 입각(권오구, 2000: 211);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사상적 배경은 자유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사회진화론, 낭만주의 등이 뒤섞였다(김종일, 2006:52); 인보관운동의 근저에 신교의 사회복음화 운동(최일섭, 류진석, 2003: 88); 인보관운동과 자선조직협회의 사상적 근저에 기독교사회주의가(박영호, 2001: 469-470, 474); 자선조직협회의 사상적 근저에 자본주의 가치와 청교도윤리가 있다.(Zastrow, 2000: 16); 사회개량운동[인보관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차티스트(Charlist)와 기독교사회주의자(christian Socialist)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이었다(함세남 외, 2002: 51); 이처럼 자선조직협회(COS)와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 근저에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지만, 확실한 것은 사회복지의 효시인 이 두 조직의 사상적 배경에 기독교사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는 자선조직협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으나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자선조직협회의 정신과 노력은 실제적인 사회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선조직협회의 사상들에 대해서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사회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봄으로 더 강력하고 보다 진보적인 개입에 대한 요구가 인보관운동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최무열, 2008: 237)

교회에서 빈곤에 대한 시각 차이로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에 있어 사회적 구호활동과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차이를 보였듯이, 사회복지의 출발도 자선조직협회와는 다른 궤도의 출발인 인보관운동이 있었다. 자선조직협회는 자조적 이념을 중시하여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고,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함께 개인을 교화하여 변화시켜 자조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반면에 인보관운동은 빈곤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빈민의 입장에서 생활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사회적 힘을 길러 사회구조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힘을 부여하며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접근을 하였다.(김정진, 2002: 193-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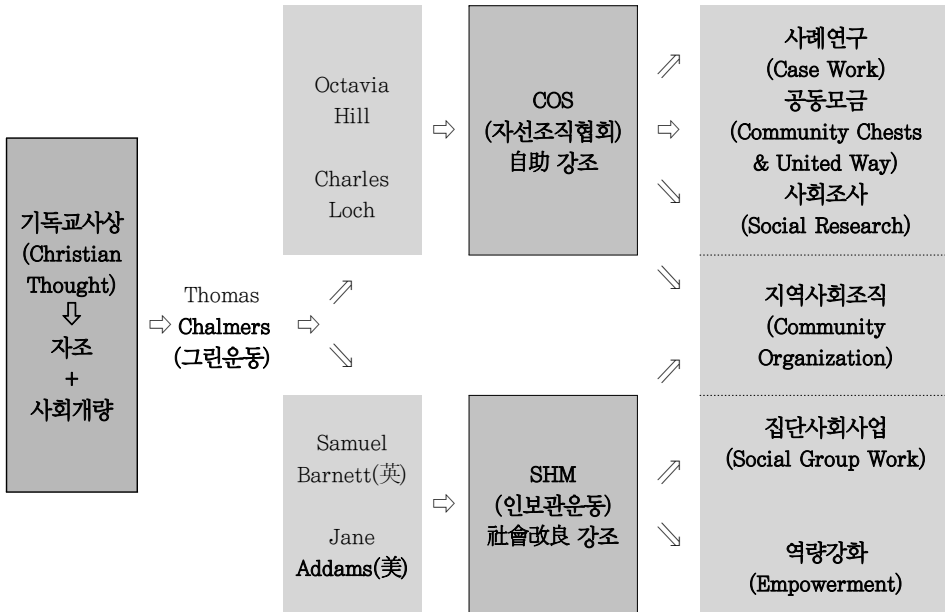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두 조직 간의 근본적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자선조직협회(COS)는 빈곤의 원인이나 인간의 본성을 보는 관점이 인보관운동(SHM)과는 매우 다르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다. 즉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성격의 결함과 선택에서 찾는 데 비해 인보관운동은 이와 다르게 사회 환경 즉, 사회구조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자선조직협회는 자조(自助)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인보관운동은 사회구조적 개량(改良), 즉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사회연대의식을 한 사회개량주의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박병현, 2007: 93)

가난의 원인에 대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의 서로 다른 이해는 자조와 사회개량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결정(행동)으로 드러난다. 예로 들어서, 영국에서 연금제도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박애(자조)를 앞세우는 자선조직협회는 연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익집단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자선조직협회는 로크(Charles Loch)를 대표자로 지방행정청 간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제도에 반대하였다. 자선조직협회는 빈민들은 자기들의 노후를 위해 마땅히 저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정부의 개입은 빈민들을 구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구걸시

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선조직협회의 견해는 정부의 연금법 제정이 기정사실화 되어가자 연금제도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박병현, 2007: 61) 자선조직협회의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다음의 세 가지의 단순한 가정을 근거하여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빈곤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구조상의 모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민의 도덕적 또는 성격적인 결함에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빈곤의 근절은 빈민들이 자신들의 성격적 결함을 인정하고 교정하려고 할 때 가능하며, 셋째는 이런 목적의 달성은 다양한 자선 단체들의 협력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Boyer, 1987: 144; 박병현, 2007: 91 재인용). 이에 반해 당대 최고의 엘리트 남성들이 위주가 되었던 영국의 인보관운동은 박애보다는 법규를 더 중요시 여겨 1900년대 초반 진행되었던 사회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보관운동의 창시자였던 바네트 목사는 비기여연금제도의 옹호자였으며, 1902년의 교육법 입법과정에 깊게 간여하였다. 대표적 인보관인 ‘토인비 홀’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후일 1907년의 사회입법을 초안하기도 하였고, 1911년의 건강보험법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밖에도 많은 인보관 참여자들이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개혁 등에 참여하였다(Reinders, 1982; 박병현, 2007: 58 재인용). 이처럼 자선조직협회와 달리 법규 제정과 같은 사회개혁에 대한 참여가 인보관운동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찾았기 때문이며, 법규 등의 개혁을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가난(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강조점을 상이하게 둔 인보관과 자선조직협회는 이후에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분야로 발전하게 된다. 인보관과 자선조직협회는 지역사회조직(지역사회사업, community organization: CO)에는 공동적으로 영향을 주지만(최일섭, 류진석, 2003: 76) 두 조직 간의 강조점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사회복지실천에 영향을 주었는데 먼저, 자선조직협회는 사례연구(Casework)(박광준, 2003: 178)와 사회조사에 영향을 주었고(최일섭, 류진석, 2003: 85) 공동모금(Community Chest) 등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비해서 인보관운동은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영향을 주었고(De Jong and Miller, 1995: 729-736; 정순돌, 2007: 37 재인용; Dubois and Milkey, 1996; 김성태, 홍성미, 2006: 294 재인용) 또한 집단사

회사업(Group Social Work)(권오구, 2000: 213)에 영향을 주었다.



<그림 2> 기독교사상과 COS와 인보관운동의 관계

그렇다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에 가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개인적 성향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오는 것인가. 가난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적 성향과 더불어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성경은 가난에 대해 단 하나의 원인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 타락으로 인한 개인적인 죄(罪)된 선택과 더불어서 복잡한 사회구조가 가난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ider, 2002: 182) 성경을 보면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잠6:6:23:21)”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동시에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여 ...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는 ..... 화 있을진저(사10:1-2)”라고 말하고 있다. 성구 한 구절만을 보고 한 구절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 대한 강조보다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성경이 가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개인적 성향과 더불어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모두 강조해야만 한다.

웨슬리가 사역한 당시의 영국 사회는 “가난은 자기 책임적 운명이거나 신적인 형벌의 징표”로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가난한 자들의 물질적 궁핍과 곤경이 사회적으로 최악시되고 냉대를 받았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개인적 성향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가난한 자들과 이들의 비참함을 지켜보는 자들 모두가 사회적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연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웨슬리는 가난의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나 가난한 자들의 무능력과 같은 개인적 성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웨슬리는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개인적 성향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 일반적 비난들을 “악의에 찬 악마적 비난”으로 보았던 것이다.(김영선, 2006: 83)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나태와 같은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사회구조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웨슬리(John Wesley)가 사역한 당시의 사회분위기와 유사하게 오늘날 우리사회도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성향으로만 돌리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전적으로 사회구조적 문제로만 돌리는 경우를 본다. 사회복지이데올로기 중에서 (신)자유주의는 전자의 가까운 예이고, 후자의 가까운 예는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이데올로기는 모두 사회문제에 대한 극단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에서 빈곤과 같은 오늘날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해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개인적 성향과 더불어 사회구조적 모순이라는 양자 간의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

### 3. 사회복지의 실천 목적

사회복지의 실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전도(선교)가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인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 실천의 목적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전도와 사회적 책임 둘 다 인가. 스토틀(John R. W. Stott)는 기독교에서 떠들썩한 논쟁 중의 하나인 ‘복음전도냐 사회적 책임이냐’의 논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사회참여가 자신들의 관심사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대해 떠들썩한 논쟁이 일어났어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다.(Stott, 2005: 21)

왜 이상한 논쟁 중의 하나라고 하는 ‘전도냐 사회적 책임이냐’의 논쟁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인가. 성경의 메시지가 복음전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며, 예수 그리스도도 과거의 성도들도 바로 복음주의의 전통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삶에 대해 충실한 아름다운 전통적 삶을 살아왔는데 왜 오늘날에 와서 복음주의는 ‘전도냐 아니며 사회적 책임이냐’ 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가. 그것 또한 성경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다. 서로 다른 일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위의 소모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성경을 이해할 때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바로 ‘전도냐 사회적 책임이냐’하는 소모적 논쟁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사이더(Ronald J. Sider)는 성경 전체의 흐름 중 큰 하나가 바로 사회적 책임임을 지적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선포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생활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의 사실을 간과하고 일면(一面)에 지나지 않는 우상숭배라는 영적 문제로만 집착할 경우(靈解에 해당함), 사회적 책임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소극적 자세를 지닐 수밖에 없다.

[구약] 예언자들의 메시지<sup>10)</sup>는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그들을 멸망시켰음을 보여 준다. 물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유였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자주 우상숭배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는 기억하는 반면, 경제적

10) 참고로, 김정진은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종교적인 신앙심에 근거한 자선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과부와 고아 그리고 거지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를 위해서 십일조법, 안식년, 희년법으로 분배정의를 실천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억제하려고 하였다. 셋째, 사회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예의 출현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면서 노예해방을 규정하고 있다.(김정진, 2002: 183-184) 이처럼 구약의 율법의 정신에도 사회적 책임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착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간과한다. (……)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눅4:18-19]을 영해함으로써, 그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피하려고 한다. 분명히 다른 성경본문들이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리워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우리를 죄책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말은 이사야서에 나온다. 구약의 배경에서 이 말씀은 의심할 나위 없이 물리적 억압과 포로상태를 언급했다. 누가복음 4장 18-19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7장 18-23절에서 예수님은 물리적 육체적 문제를 언급하고 계심이 분명하다.(Sider, 2009: 88,92-93)

하나님 나라(‘내 나라’[요18:36])에 대한 해석의 차이 또한 이스라엘에 멸망에 대한 영적 해석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현실과 거리를 두게 만듦으로써 현실세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18:36)” 이 한 구절에만 집착할 경우에 우리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기 쉽다. 주님은 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쉽게 생각한다. 또한 본문 자체가 기독교는 전적으로 영적이고 체험적인 것이며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기독교인의 전통적인 경향(이또한 영적 삶을 강조하는 일종의 靈解)을 더욱 고무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고후6:17)”라는 구절 역시 기독교인이 실제로 국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구절로 해석되어 왔다.(Lloyd-Jones, 2003: 75) 이러한 해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현실(국가: 정치와 같은 현실적인 사회문제)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좁은 시각을 가진 자구적 성경해석, 전체를 보지 못하는 성경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길로 나아가도록 한다.

믿음(신앙)과 사회복지 사역의 통합의 정도 또한 성경해석의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모든 현대 기독교 교단들은 믿음들과 사회복지 사역의 통합에 대한 얼마간의 의식을 표현한다. 이들을 네 가지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Davidson et

al, 1990: 11-12; Watkins, 2003: 70-71 재인용) 그 네 가지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은 믿음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고, 사회복지 사역은 신앙의 초점이라기보다는 부산물이라고 여긴다. 이 모형을 취하는 단체들은 대개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신학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수적이다. 그들은 더 큰 신앙이 좋은 구성원들의 믿음 체계에 있으면,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둘째 모형은 사회복지 사역이 믿음 체계보다 더 중요하며 효과적 사회사역들은 사람들의 신앙을 높일 것이라고 여긴다. 이들 ‘자유주의’ 교단들은 더 많은 교회들과 개인, 교회 출석자들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의 필요들에 관계된 사회적 그리고 공동체적 쟁점들에 관여할 때, 그들의 신앙은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 셋째 모형은 믿음들과 사회사역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 ‘이원적’ 견해에서는 신앙에서의 성장과 봉사에서의 성장의 쌍둥이 목표들이 교단에 의해서 동등한 관심이 주어진다. 교단은 신앙과 사회복지 사역 사이에 연관을 맺으려 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지도자들은 개별 구성원들과 회중들이 연관을 맺기를 기대한다. 넷째 모형은 둘 다 동등하게 중요하며 분리될 수 없다고 여기는 통합적 모형이다. 이를 ‘전체적(holistic)’ 견해라고 하는데 이 견해는 믿음들과 사회복지 사역에 동등한 강조점을 둔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강화하고 지지하기 때문이다. 신앙은 만약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관심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며, 또 사회적 관심은 만약 신앙에 의해 수반되지 않으면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란다.” 왜 미국 기독교 교단에 따라서 믿음과 사회복지의 통합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관계 스펙트럼(spectrum)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것 또한 성경해석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범주를 규정하게 되고,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믿음과 사회복지의 통합에 대해 교단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sup>11)</sup>

종말론에 대한 견해 즉 천년왕국설에 대한 이해의 차이 또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즉 사회복지의 실천의 목적이 전도(선교)나 아니면 사회적 책임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1)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진보적(進步的) 교회지도자들은 전도보다는 사회봉사를 더 강조하고, 사회봉사에서도 사회봉사(SS: Social Service)보다도 사회행동(SA: Social Action)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보수적 교회지도자들은 진보적 교회지도자들과 반대 입장을 취한다.(김성철 역음, 2003: 71)

기독교종말론은 성경해석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천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때부터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의 중간기간을 의미한다. 이 천년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는 지상에 낙원(천년왕국)을 건설하고 다스리신다. 이런 견해는 천년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건설한 후 그리스도가 그곳에 재림한다고 하여 이를 전천년설(pre-millennialism)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비해 인간들이 스스로 천년왕국을 건설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보는 견해가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이다. 이는 인간의 역할과 상관없이 갑자기 도래한 그리스도에 의해 천년왕국과 최후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전천년설과 달리 인간의 종말론적 사명을 강조한 사람들은 대체로 후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계시록의 천년을 상징적 언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천년왕국 자체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무천년설(amillennialism)이라고 한다.”(류태영, 2007: 155).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천년왕국설에 대한 다른 견해들은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은 사회적 책임보다는 전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인간 자신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사회적 책임보다는 전도에 더욱 힘쓰게 된다. 언제 그리스도가 재림할지 모르며 심판의 도래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야 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후천년설을 믿는 자들은 천년왕국의 건설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보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건설에 스스로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사회에 대한 참여에 적극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확률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무천년설을 따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천년왕국을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믿는 자들보다 전도에 대해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후천년설을 믿는 자들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무천년주의자들은 전천년자들 보다는 사회적 책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고, 후천년자들 보다는 전도(선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남북전쟁을 전후로 하여 미국 내 복음주의적 기독교는 가난, 노동자의 권리들, 주류 판매, 빈민촌 주택 공급, 그리고 인종차별 등과 같은 쟁점들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하였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수많은 운동들이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 가운데 생겨났다.(Smith, 1976: 148-177; Watkins, 2003: 64 재인용). 피니(Charles G. Finney)의 제자들의 다수도 남북전쟁 전에 가장 견고한 노예폐지론자 그룹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예들의 해방과 죄인들의 회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교하였다. 강한 반노예제 정서를 가지고 있던 피니 자신도 오벌린 대학(Oberlin College)의 총장이 되었고 학교를 급진적 여성해방론과, 급진적 노예폐지론 그리고 완벽주의의 못자리가 되도록 이끌었던 이유의 근저(根底)에도 바로 후천년왕국설적 종말론<sup>12)</sup>이 자리 잡고 있었다. 피니와 그의 동료들은 후천년왕국설적 종말론에 입각하여 개혁적인 사회참여와 사회책임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후천년왕국설은 교회가 천국 왕국을 가져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것(재림)이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후천년왕국설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사회적 행동의 낙관주의적 해석에 기여를 하게 된다. 즉 이러한 종말론적 견해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께로 돌이키고 기독교적 이상들을 갖고 사회에 침투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을 향한 사회적 변화를 대변함으로 지구상에 천년동안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 준비한 세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Dayton, 1976: 18; Watkins, 2003: 65 재인용).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19세기 말이 되어서 후천년왕국설적 견해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기 시작하여 전천년왕국설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세계대전 등으로 인해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전천년왕국설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즉 전천년왕국설적 종말론은 세계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19세기 말 시대 상황과 잘 맞아떨어졌다. 전천년왕국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상에 천년 동안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신다고 한다. 그런 후 사탄은 묶어지고 그 결과 악의 영향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된다. 전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도전은 그리스도가 돌아오시기 이전에 전도(선교)를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심판

12) 후천년설의 주장은 17~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류 역사에 대해 낙관적이어서 역사 안의 깊은 죄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백찬홍, 2007: 118각주)

의 화형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것이 최우선이다.(Watkins, 2003; 65-66). 전천년왕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즉각적으로 닥친 사회적 필요들에 주의를 돌리라고 권면하는 동안 그리스도인 그들이 장기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해야 할 논리를 보지 못하였다.

전천년왕국설의 견해는 또한 근본주의자-자유주의자의 논쟁으로 알려지게 된 그것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이 논쟁은 복음주의적, 영혼 구원하는 기독교인들과 개혁하는 사회적 행동 기독교인들 사이에 사실상 복음주의적 기독교와 사회적 기독교 사이의 분리로 이끈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Leonard, 1988: 249; Watkins, 2003: 66 재인용)<sup>13)</sup> 이처럼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선교(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를 두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극단적으로는 선교에만 치중하게 된다든지(전천년설) 아니면, 사회적 책임에만 가치를 두는 쪽으로 나가든지(후천년설) 아니면 선도와 사회적 책임에 균형을 유지하며 나가든지(무천년설) 한다.

<표 1> 기독교 종말론과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종 류	내 용	강 조 점
전(前)천년설 (pre-millennialism)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 완성	재림이 가까워짐 전도(선교)에 우선순위
후(後)천년설 (post-millennialism)	인간의 노력을 통한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사회적 책임에 우선순위
무(無)천년설 (amillennialism)	천년왕국의 시기는 상징적 의미 시기가 정해있지 않음	전도(선교)와 사회적 책임간 우선 순위가 없음

성경구절에 대한 해석이 ‘사회복지의 목적이 전도나, 사회적 책임이나.’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설에 대한 해석 또한 사회적 책임과 전

13) 사회복지(Social Gospel)의 주동자이며 형성자인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의 가르침의 경우 후천년왕국적 종말론을 받아들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종말론의 전천년왕국적 견해로 돌아선 복음주의적 교회 지도자들은 그와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Watkins, 2003: 67)

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회복지의 목적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전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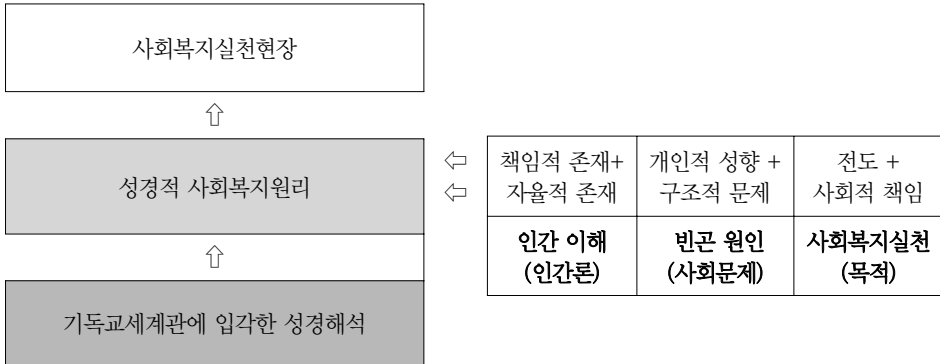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구제와 봉사를 말씀 증거의 보조수단이나 부수적인 과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삶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봉사를 교회사역의 한 부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되었다. 교회가 말씀 증거 하는 일에만 몰두할 때 일어날 수 있었던 문제점들이 구제와 봉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해결되어 두 가지 사역을 전보다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김한옥, 2001:169)

스토트는 ‘보다 완전한 신론, 보다 완전한 인간론, 보다 완전한 기독교론, 보다 완전한 구원론, 보다 완전한 교회론’을 성경적 근거로 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기술하였다.(Stott, 1993: 436-444) 전(前) 캔터베리의 대감독이었던 고(故) 템플 경(Lord, William Temple)은 오래 전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질서를 가능한 한 기독교적 원칙에 가깝게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Temple, 1942: 47; Holmes, 1994: 320 재인용)고 선언한 것이나, 또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경제활동은 새로운 사회,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정의와 ‘shalom’(shalom)의 왕국의 새로운 질서의 모델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한 홀즈(Holmes, 1994: 320)의 주장도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III. 맺은 말

성경해석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인간을 이해할 때에 자율적 인간으로 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보느냐, 영적 측면을 포함한 전인적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영적 측면에 대해 무시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또는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성향에서 찾느냐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의 경우 전도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찾느냐 아니면 사회적 책임에서 찾느냐

에 따라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실천 기술과 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른 성경해석을 통한 성경적 사회복지원리를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림 3> 성경해석과 사회복지실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성경원리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해석을 통한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의 이해에 대해 사회복지 원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인간을 책임적 존재임과 더불어 자율적인 존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전인적 존재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동성애, 낙태, 안락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 자율적 인간의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것을 보여준다.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성경은 개인적 성향과 더불어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자조(自助) 프로그램과 더불어 사회 개량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전도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책임에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목적이 전도와 사회적 책임 양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실천모형 등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김한옥 (2001). “기독교 사회봉사신학 정립의 필요성”. 『성경과 신학』. 29. 161-188.
- 김영선 (2006). “존 웨슬리의 사회복지 목회”. 『한국개혁신학논문집』
- 김정진 (2002). “기독교사상과 사회복지실천 이념에 관한 연구”. 『기독교와 인간복지』. 천안: 나사렛대학교출판사.
- 김용태 (2006).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배경, 내용, 그리고 모델들』. 서울: 학지사.
- 김종일 (200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 류대영 (2007). 『미국 종교사』. 파주: 청년사.
- 박병현 (2007). 『복지국가의 비교: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고양: 공동체.
- 박종삼 (1987). “인간이해에 있어서 기독교와 심리학”. 『한국기독교연구논총』.
- 박 준 (2003).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마녀재판에서 복지국가의 선택까지』. 서울: 양서원.
- 백승균 (2004). 『호스피스 철학』.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백찬홍 (2007). “미국제 복음주의와 한국 교회”. 최형목, 백찬홍, 김진호 공저. 『무례한 자들의 크리스마스』. 서울: 평사리.
- 성인경 (2001).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 있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손병덕 (2005).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손봉호 (1975). “칸트철학의 현대적 의의”. 『기독교사상』.
- 손봉호 (1979). 『현대정신과 기독교적 지성』. 재판. 서울: 성광문화사.
- 원석조 (2003).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3판. 서울: 양서원.
- 이강국 (2007). 『가난에 빠진 세계』. 서울: 책세상.
- 정순돌 (2007). “임파워먼트의 역사”. 『사회복지와 임파워먼트』. 서울: 학지사.
- 주만성 (2003). “기독교대학 공동체 어떠해야 하는가?”. 『기독교대학 VISION 2020』.
- 최무열 (2008). 『사회복지의 뿌리를 찾아서-기독교 사회복지의 역사』. 서울: 나눔의 집.
- Adams, J. E. (1983),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el*. Nutley: Pre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 Adams, Robert (2003), *Social Work and Empowerment*. 3rd edition. Palgrave Macmillan. 최명민 역 (2007). 『임파워먼트와 사회복지실천』. 파주: 나남.
- Anderson, R. S. (2002), “Sin: The Third Dimension of Human Spirituality: Examine a more Radical, Axial, Dimension to the Concept of Sin,” *Christian*



- Counseling Today*. 10.
- Boice, James Montgomery and Benjamin E. Sasse (ed). 김지찬 역 (1998). *몽고메리 보이스, “교리와 예배 생활의 개혁”*, 『복음주의의 회복과 고백』, 서울: 생명의말씀사.
- Collins, Gary R. (1993),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Colorado Springs, Colo: NavPress.
- Collins, Gary R. (2001),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Relating the Basic Teachings of Scripture to People's Problem*. Colorado Springs: NavPress.
- Crabb, Larry (1996), *Understanding Who You Are*. Colorado Springs, Colorado: NavPress. 한재희, 이혁의 역 (2002).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간 이해』. 서울: 이레서원.
- Dayton, Donald W. (1976),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Publishers.
- De Jong, P. and S. Miller (1995), “How to Interview for Client Strengths,” *Social Work*, 40(6). 729-736.
- Dyrness, William A. 신재구 역 (1993). 『현대를 위한 기독교 변증』. 서울: IVP.
- Holmes, Arthur Frank (1983), *Contours of a World View: Studies in a Christian World View*. Grand Rapids, MI: Eerdmans. 이승구 역 (1994). 『기독교 세계관』. 서울: 엠마오.
- Humphry, D. (1996), *Final Exit: The Practicalities of Self-Deliverance and Assisted Suicide for the Dying*. New York: Dell.
- Johnson, Philip E. (1995), *Reason in the Balance: The Case Against Naturalism in Science*. Downers Grove, IL: IVP. 양성만 역 (2000). 『위기에 처한 이성』. 서울: IVP.
- Kaori, Kawai 육민혜 역 (2005). 『섹스 자원봉사』. 서울: 아름.
- Lloyd-Jones, D. Martyn (1987), *Healing and Medicine*. Eastbourne: Kingsway Publications. 정득실 역 (2003). 『의학과 치유』. 서울: 생명의 말씀사.
- McMinn, Mark R. (1996), *Psych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Wheaton, Ill: Tyndale House Publishers. 채규만 역 (2001).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 된 기독교 상담』. 서울: 두란노.
- Meissner, Ursula and Heinz Metlitzky 유명미 역 (2004). 『죽음의 춤』. 서울: 대원사.
- Menninger, Karl (1978), *Whatever Became of Sin?* New York: Bantam.
- Myers, D. G. (2000), “Is Prayer Clinically Effective?,” *Reformed Review*, 53(2).
- Orr, Robert D. David L. Schiedermayer, and David B. Biebel. 원준희 역 (1997). 『생명윤리의 고민: 삶과 죽음의 선택 문제』. 서울: 생명의말씀사.

- Powlison, D. A. (2000), "Affirmations & Denials: A Proposed Definition of Biblical Counseling,"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9(1).
- Reinders, Robert C. (1982), "Toynbee Hall and the American Settlement Movement" *Social Service Review*.
- Schaeffer, Francis A. (1968), *Escape form Reason*. Leicester: IVP. 김재권 역 (2003). 『이성에서의 도피』. 2판. 서울: 생명의말씀사.
- Sider, Ronald J. 한화룡 역 (2009).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개정판. 서울: IVP.
- Sider, Ronald J. (1997), *Rich Christian in an Age of Hunger*. Nashville, TN: Word Publishing. 한화룡 역 (2002).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서울: IVP.
- Sire, James W. 홍병룡 역 (2007). 『코끼리 이름 짓기』. 서울: IVP.
- Smith, Timothy (1976), *Revivalism and Social Reform*. Gloucester, Mass.: Peter Smith.
- Stott, John R. W. 정옥배 역 (2005).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 Stott, John R. W. 정옥배, 한화룡 역 (2002).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 Temple, William (1942), *Christianity and the Social Orde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Takashi, Tachibana 전현희 역 (2002). 『우주로부터의 귀환』. 서울: 청어람미디어.
- Watkins, Darrel R. *Christian Social Ministry: An Introduction*. 박종욱 역 (2003).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베드로서원.
- Wilhoit, Jim 신서균 역 (1991). 『현대 기독교 교육』.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Wolterstorff, Nicholas (1981),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이종재 역 (1990). 『정의와 평화의 그날까지』. 부산: 에페소.
- Wolterstorff, Nicholas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MI: Eerdmans. 홍병룡 역 (2007). 『정의와 평화의 입 맞출 때까지』. 서울: IVP.

Abstract

## Biblical Interpretation and Social Welfar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human being, a cause of poverty and the purpose of  
Social Welfare

Sang-Woo Kang(Baekseok University)

Biblical interpretation affects our lives likewise the Biblical interpretation affects social welfare. For example, Are Human beings either an autonomous beings or a responsible beings? Is the cause of poverty either a personal inclination or a social structure? Is the purpos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either mission or social responsibility? All of this has to do with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of this kind affects Christian social welfare. Therefore Christian World-view perspective is important to interpret the Bible and to practice Christian Social Welfare.

Key words: biblical interpretation, social responsibility, Christian World-view, cause of poverty.